자연과 문화, 경계 넘어 끊임없는 관계맺음 주목

광주비엔날레 눈여겨볼 파빌리온

〈17〉 양림아티움



청주의 연꽃 농장에서 얻은 영감이 조각 형태로 탄생하고, 부산 해녀들의 일상은 예술 작품으로 재구성됐다.

한국과 프랑스의 예술가들이 교류와 협업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관계를 탐색하는 전시가 광주에서 펼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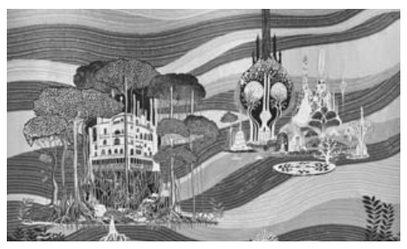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남구 양림아티움에서 프랑스 파빌리온 '자연과 문화 너머'를 15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에 구축된 프랑스 예술 레지던시 네트워크 '빌라 프랑스'를 소개하고,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이어온 예술적 교류와 창작의 성과를 조명하는 자리로 아코르, 앰배서더, 까르띠에, CMA CGM, GTT, 한미, JCDECAUX, 대한항공, TV5MONDE, 로레알 그룹, LVMH, 마르디 메르크레디, 르노, 풍산, SGC가 후원한다.

전시는 한국의 빌라 한불(부산·청주), 대만의 빌라 포르모사, 일본의 빌라 구조야마를 매개로 형성된 교류와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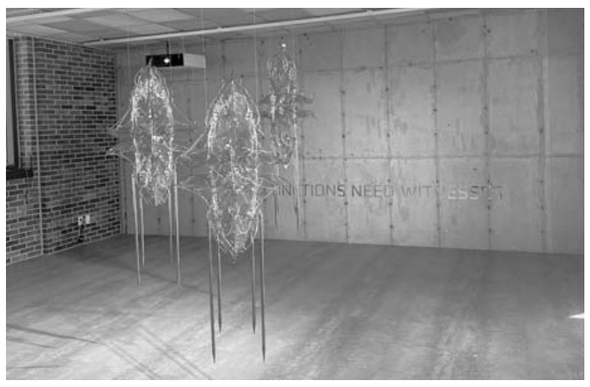






빌라 포르모스의 세실 팔루신스키&엘사 므로비에츠(AWEN ENISHI) 작품인 'Villes flottantes-Bresil'(왼쪽)과 'Villes flottantes-Inde'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 프랑스 파빌리온 '자연과 문화 너머'…오는 1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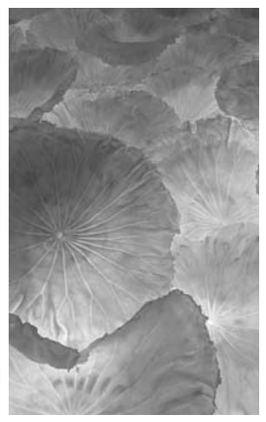






플로리안 바렌은 빌라 한불 부산에 입주해 해녀들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사진은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Fallen Fairies', '온토제네즈', '아스테리'





모나 오렌의 '유키 III'(사진)는 청주 근처 연꽃 농장을 방문한 후 천연 한국 왁스와 일본 헤이즈 왁스를 결합해 시적인 조각 형태로 연못의 풍경을 구현했다.

일상의 사물, 공간의 흔적에서 찾아낸 또다른 세상, 소멸과 존재의 기억들
조각·설치·자수·사운드·디지털 기술…낯설고 다양한 재료·형태로 표현

제16회 광주비엔날레의 주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구 '너는 네 삶을 바꿔야 한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통해 생태학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줄리아 황 가뇽, 윤지영, 정헌기, 요한 르탈렉이 큐레이팅을 맡았으며, 빌라 쿠조야마의 카린 아라비안&프랑크 볼레(JN Mellor club), 빌라 한불·빌라 쿠조야마의 모나 오렌, 빌라 포르모스의 세실 팔루신스키&엘사 므로비에츠(AWEN ENISHI), 빌라 한불의 플로리안 바렌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번 프랑스 파빌리온은 지역 창작 공간과 국제 레지던시 네트워크의 협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빌라 한불에서 제작된 작품과 함께 빌라 구조야마에 참여한 작가 2명의 현장 창작도 이뤄졌다. 이들은 호랑가시나무창작소와 협업해 전남광주에서 두 달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신작을 제작했다.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원과 호랑가시나무창작소가 파빌리온의 예술·기술감독을 공동으로 맡았으며, 빌라 구조야마와 빌라 포르모사가 지원했다.





카린 아라비안&프랑크 볼레(JN Mellor Club)는 양림동에서 수집한 버려진 사물을 재구성해 토템을 연상시키는 설치작품으로 사물에 담긴 신화적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되묻는다.

대표적으로 카린 아라비안&프랑크 볼레(JN Mellor Club)는 양림동에서 수집한 버려진 사물을 재구성해 토템을 연상시키는 설치작품으로 사물에 담긴 신화적 의미와 가치의 기준을 되묻는다.

또 조각가 모나 오렌의 'Yuki III'(2025)는 청주 인근 연꽃 농장을 방문한 경험에서 출발했다. 작가는 한국의 천연 왁스와 일본의 검양옻나무 왁스를 결합해 재료를 조각적 형태로 변형시켰다.

플로리안 바렌은 2025년 가을 빌라 한불 부산에 입주해 부산의 마지막 해녀 공동체와 협업했다. 해녀들의 일상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조각은 점차 사라져가는 역사와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전시가 열리는 양림아티움은 남구 양림동에 자리한 공공 창작·전시 공간이다. 2025년 9월부터 전시와 연계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양림아티움은 펭귄마을 공예거리 주변 미술관과 연계한 전시를 통해 지역과 예술을 연결해 왔다. 지난해 열린 'Awakening Spaces: 일상을 깨우는 공간'에서는 회화와 설치 작품을 소개하고 도슨트 투어, 작가와의 대화, 공예 체험 등을 양림동 골목과 공방으로 확장했다. 올해부터는 호랑가시나무가 공간을 운영하며 신진 작가 지원과 다양한 관객층의 예술 참여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복 기자

